

## 보도설명자료 (19. 10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반도체의 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

(뉴스1 10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10.24일 '제12회 반도체의 날' 행사는 주최측과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
- ◇ 10월 25일 뉴스1 <비장했던 '반도체의 날'... CEO 줄대기, 지각한 성윤모 '무성의' 눈살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### 1. 기사내용

- 반도체의 날 행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5분 지각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
  - 또한 정부 포상 수여 직후 행사 초반에 현장을 나섬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반도체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성윤모 장관은 주최측과 사전에 미리 협의된 정해진 시간 일정대로 참석(18:15분) 및 이석(19:05분)하였음
  - 성 장관은 당일 오후 군산에서 개최된 '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' 참석 후 바로 '반도체의 날' 행사에 참석하였으며,
  - 은탑·동탑 훈장, 산업 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, 장관 표창 등 총 49점의 정부 포상을 모두 직접 수여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축하 및 격려한 이후 예정된 일정대로 이석하였음 (19시 30분 '제8회 세계 재생에너지총회' 공식 환영만찬 주제)

- 또한, 이번 행사는 민·관이 합심하여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도체 코리아 위상을 드높이자는 공감대를 이루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,

- 동 기사에서 '정부의 무성의한 태도' 라고 언급한 것은 민·관이 함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종원 과장(044-203-4270)  
배은주 사무관(044-203-4274)